

# ‘물가 폭탄’에 팍팍한 가계살림 중·하위층 절반이상 올해 적자살림 ‘허덕’

### 1분기 분석 ... 고소득층 적자 가구는 감소

물가상승에 따른 지출부담 증가 등으로 소득 중·하위층 중에서 적자에 허덕이는 가구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전국가구(농어가 및 1인가구 제외) 중 소득 하위 30%(소득 1~3분위) 계층에서 가계살림이 적자가 난 가구의 비율은 55.8%로 작년 동기 대비 1.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같은 수준을 기록한 2006년 1·4분기(55.8%)를 제외하면 전국가구에 대한 가계수지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1·4분기 기준소득 1~3분위의 적자가구 비율은 2003년 55.4%, 2004년 54.5%, 2005년 54.5%, 2006년 55.8%, 2007년 54.1%, 2008년 55.8% 등이었다.

적자가구 비율은 소득과 지출의 수치를 보여주는 지표로 다른 재산상황은 반영되지 않는다.

적자가구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들 계층이 해당기간에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출에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4~7분위 중 올해 1·4분기에 적자가 난 가구의 비율 역시 26.9%로 전년 동기(25.3%)에 비해 1.6%포인트 높아졌다.

1·4분기 기준소득 4~7분위의 적자가구 비율은 2003년 27.9%, 2004년 27.8%, 2005년 27.2%, 2006년 27.1%, 2007년 25.3% 등으로 감소세를 지속하다가 올해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반면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인 소득 8~10분위의 적자가구 비율은 지난해 1·4분기 15.2%에서 올해 1·4분기 14.4%로 0.8%포인트 떨어졌다. 1·4분기 기준 전체 전국가구의 적자가구 비율은 지난해 30.9%에서 올해 31.8%로 높아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물가가 오르면서

■ 전국 가구 분위별 적자가구 비율 (단위: %)

연도	1-3분위	4-7분위	8-10분위	평균
2003년 1·4분기	55.4	27.9	15.3	32.1
2004년 1·4분기	54.5	27.8	14.3	31.4
2005년 1·4분기	54.5	27.2	15.0	31.3
2006년 1·4분기	55.8	27.1	15.1	31.8
2007년 1·4분기	54.1	25.3	15.2	30.9
2008년 1·4분기	55.8	26.9	14.4	31.8

실제 소비가 늘지 않더라도 소비지출 부담은 증가하면서 적자를 보인 가구가 많았다”면서 “특히 광역수도·교통비 등 꼭 써야만 하는 필수 지출 부담이 늘어나면서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소득 5분위별로 흑자액을 집계한 결과 소득이 가장 적은 하위 20%인 소득 1분위는 가구당 월평균 44만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소득 2분위의 흑자액도 월평균 8천원에 그쳤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소득 5분위의 흑자액은 무려 220만2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네랄 풍부한 물 마셔보세요**

26일 오전 서울 관철동 구문빌딩 앞에서 열린 교원 L&C ‘웰스정수기’ 시용행사에 참여한 레이싱 모델들이 7단계의 웰스 필터를 통과해 인체에 유익한 미네랄 성분을 함유한 물을 맛보고 있다.

## 4천여 비상장中企 외부감사 대상 제외

### 이르면 내년부터 ... 연간 600억 비용절감 효과

이르면 내년부터 4천여개 비상장 중소기업들이 외부감사 의무화의 대상에서 제외돼 연간 최고 600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회계제도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테스크포스팀(T/F) 회의에서 중소기업의 회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외부감사의 의무화 대상인 비상장기업의 자산기준을 현행 7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외부감사 의무화의 대상기준이 조정되는 것은 1998년 이후 처음이다. 금융위는 또 내부 회계관리시스템 구축의 의무화 대상 비상장기업의 자산기준도 현행 70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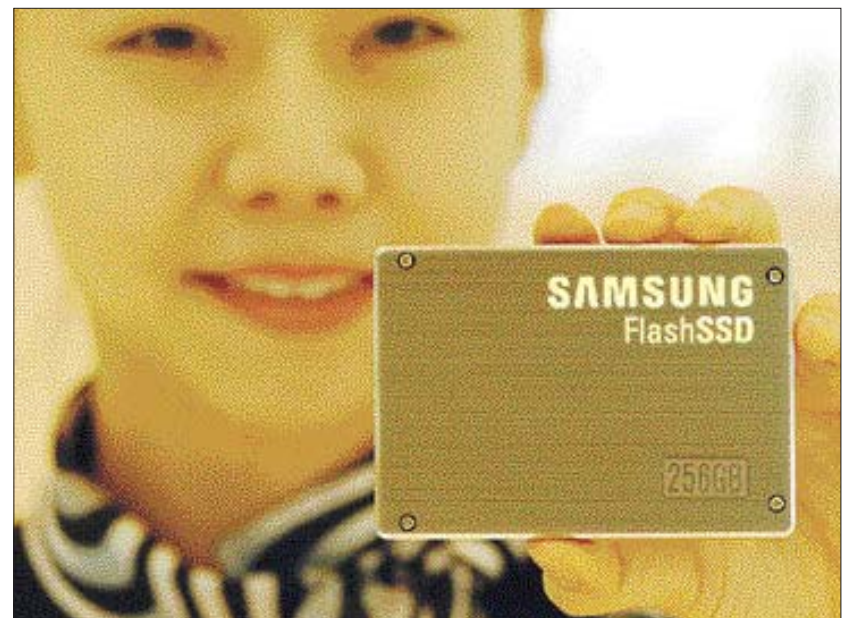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6월 중에 공청회를 거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인회계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올여 정기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외감법·시행령상 외부감사 의무화 대상기업의 자산기준이 현행 7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되면 현재 약 4천여개에 이르는 비상장기업들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으려면 연간 1천만~1천5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법·시행령이 개정되면 3천600~4천여개의 비상장 기업들이 연간 400억~600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내부 회계관리시스템 도입의 의무화 대상기업 기준도 자산 70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됨에 따라 1만5천여개 비상장 중소기업들이 사내에 별도의 회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돼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주식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장사들은 의무적으로 사내에 내부 회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매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그러나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재 1개 기업이 6~7년에 1회 이상의 무조건으로 받도록 돼 있는 회계감리의 주기를 단축할 계획이다.



**삼성 256GB급 SSD 첫 개발**

삼성전자가 최고속 PC 인터페이스(SATA2)를 적용한 SSD로는 세계 최대용량인 256GB이자 세계 최소 두께인 2.5인치급 MLC(멀티레벨셀) 기반의 SSD 개발에 성공했다. 또 세계 첫 모바일 TV 멀티모드 수신용 RF(Radio Frequency) 원칩 개발에 성공해 단말기 하나만 있으면 세계 어디서나 뉴스, 스포츠, 날씨 정보 등의 실시간 시청이 가능한 토대를 제공했다.

## 이소연씨 ‘우주상품 1호’ 우주소음 측정기 상용화

KAIST·(주)에스엠인스트루먼트 공동 개발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씨가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가져가 실험했던 우주소음 측정장치(사진)가 ‘우주상품 1호’로 상용화 된다.

26일 KAIST와 벤처기업 (주)에스엠인스트루먼트에 따르면 정부의 우주인 배출사업의 하나로 공동 개발했던 ‘우주인용 소음 계측기(ISS Sound Scanner)’를 산업 현장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 내달 초 상용 제품으로 출시하기로 했다.

에스엠인스트루먼트가 개발하고 KAIST에서 시험, 인증한 이 소음 계측기는 기존의 소음 계측기와는 달리 소음의 위치와 세기 등을 측정, 화면상에 보여줌으로써 소음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소리를 영상으로 스캔해 컴퓨터 모니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은 에스엠인스트루먼트가 처음 개발한 것으로 특허로도 출원됐다.

이소연씨는 이 계측기를 우주로 가져가 국제우주정거장 내부의 소음을 영상으로 스캔, 일종의 ‘소음 지도’를 만들어왔으며 러시아측과 협의해 국제우주정거장의 소음 저감 프로그램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이 계측기는 우주에서 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자동차, 가전기기, 기계, 주택건설(도어, 창호 등) 등 소음 제거가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비 가격도 초경량과 작업을 통해 1억원대 수준의 제조단가를 5분의 1 수준 이하로 낮출 수 있어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회사측은 보고 있다.

## 輪禍환자 보험금 지급

### 고물가 반영은 안하나

**보수연 “車보험금 지급 늘려라”**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사들이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몇 년째 제자리 걸음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26일, 자동차보험사들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2000년 4월부터 2007년 6월까지의 대인사고 보험금 지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물가와 임금 등은 그동안 많이 올랐으나 지급 보험금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에는 전체 교통사고 피해자의 78%에 달하는 부상급수 8~11급 피해자의 통계만 사용됐다.

분석결과 보험사들이 지급한 대인사고 보험금은 2000 회계연도 156만원에서 2001년 140만2천원, 2002년 138만6천원, 2003년 142만7천원, 2004년 142만9천원, 2005년 143만5천원, 2006년 144만1천원, 2007년 144만1천원으로 나타났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 기준이 인상되고 소득이 상승했는데도 보험금은 줄거나 매년 비슷한 수준”이라며 “보험료는 꾸준히 올리면서도 물가나 소득의 인상을 반영하지 않은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회사별로는 롯데손해보험(153만7천원), 한화손해보험(148만2천원), 흥국생명(147만2천원), 그린화재(146만7천원), 삼성화재(156만6천원)가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는 추세였다. 반면 현대해상(124만1천원), 현대해상(137만3천원)은 보험금을 적게 주는 회사로 분류됐다.

## 교통비용 연간 187조

### GDP 대비 23% ... 제조업 물류비 큰 부담

우리나라의 총교통비용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3%나 되며 특히 교통 혼잡비용, 사고비용, 환경비용 등 사회적비용을 포함한 ‘국가 총교통비용’이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248개 지역간 통행량, 7개 품목의 유통경로 조사, 국가교통비용 등을 조사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여객 및 화물의 수

송에 소요되는 금전적 지출뿐 아니라 교통혼잡비용, 사고비용, 환경비용 등 사회적비용을 포함한 ‘국가 총교통비용’을 최초로 산정한 결과 연간 187조 원(정부 SOC투자비 제외)으로 GDP 대비 2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7개 품목의 유통경로도 처음으로 조사됐으며 제조업의 물류비 비중은 매출액 대비 9.6%로 나타나 미국 7.5%, 일본 4.8%보다 역시 높았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아랍기업	히브니 전자제품 개발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29	062-236-0782
㈜스텔모유	[센터확장 60명] 신한카드 고객상담 사원	고졸/경력무관	2400~2600	05/29	062-412-5454
롯데칠성음료(주)광주공장	생산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5/29	062-571-8871
한국건설	토목기술직 경력사원	대졸/경력5년	회사내규	05/30	062-670-0211
에프엔디	호텔 프론트, 식음료, 출세부, 소물리에, 바리스타, 캐서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30	062-714-1000
원시시스템(주)	웹프로그래머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5/30	062-384-1161
대한일보사	편집기자 및 광고디자인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30	062-527-4050
뷰티코리아(주)	시무직(총무, 관리, 무역) 정규직 사원	고졸/경력3년	회사내규	05/31	010-9209-9688
주화인메이티브이	기계기공 부품 생산관리 경력직	초대졸/경력3년	2600~2800	05/31	062-945-8356
동화신기(주)	사무보조 여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31	062-717-7278
삼성테크(주)	08년 Summer Internship [호남권]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02	02-3459-8382
누리원	쇼핑몰 MD신입/상품매입, 배송관리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6/02	062-523-9093
튜닝아이	도색부 생산직/ 소핑물 운영관리 사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6/02	062-372-9002
동양생명(주)본사	[TM1위]고객상담원250명 (월평균430,주5일,TV방송중)	고졸/경력무관	4000~5000	06/03	02-518-2769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 카드 사용 하루 1,200만건 돌파

올해 1·4분기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각종 카드를 하루 1천200만건 이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08년 1·4분기 중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1분기의 각종 카드 이용실적은 하루 평균 1천206만건, 1·3조천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18.8%, 금액은 15.9% 급증했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 이용 실적은 하루 평균 1천28만건, 1·2조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8%와 14.8% 늘었다.

이용항목별 보면 신용카드를 이용한 물품·용역구매는 건수와 금액 면에서 각각 16.4%, 18.1% 증가했다. 현금서비스 이용 건수(3.0%)와 금액(3.1%)도 1분기에 증가세로 돌아섰다.